

여수시 “경도개발 마음껏 이야기 합시다”

전남도·광양청·여수시의회·YKD·시민단체·지역주민 한 자리에
경도 진입도로, 타워형 레지던스 문제해결 기대...유튜브서 생중계



여수시가 오는 3월 3일 14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주제로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밝혔다. 최근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경도 진입도로와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

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도개발 허가권자인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인 와이케이디벨로먼트(YKD), 여수시의회, 여수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언론인,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15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경도 진입도로 개설사업 부담금 71억 7,800만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겠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도 개발은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광양시, 남도장터 입점 예정 업체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광양시가 남도장터 쇼핑몰 입점·입점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에 나선다. 시는 비대면 온라인 유통채널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체당 400만 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광양시는 상품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남도장터 쇼핑몰 입점·입점 예정인 지역 내 업체 6곳을 예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내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콘텐츠 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1건,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통한 SNS 마케팅, 쇼핑지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 마케팅전략팀(☎061-797-3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심종섭기자



고흥군, 도서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추진

고흥군은 지난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주로 도서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도선에 대해 천원 단일요금제(1,000원)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요금 단일요금제는 군수공약사항으로 도선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섬과 육지를 더 자유롭게 왕래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여

가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시키고 또한 입도객 증가로 인해 도서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현재 고흥군의 도선은 득량5도(득량도, 시산페리호(시산도), 화도호(상·하화도), 죽도호(죽도), 연흥호(연흥도), 애도호(쑤섬) 6척이 운항중이며 2021년 한 해 도선 이용객수는 16만명이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방사업 본격 추진

오는 6월까지 13곳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완료로 산림재해 예방 총력

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장마철이 시작되는 오는 6월까지 사방사업 완료를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생활권 인접지역에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6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6곳, 계류보전 4곳, 산지사방 3곳 총 13곳에 사방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사방시설 안전점검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차수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하여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순천시 산림과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방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현재 사방댐 77곳, 계류보전 61곳을 관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의(義) 주제 ‘별교선근공원’ 주민 품으로

도심 속 예술 공간...지난 1일부터 주민 개방



의향, 예향, 다향 3보향의 고장인 보성군 별교읍에 의(義)를 주제로 한 공원이 조성됐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발생한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보성군은 별교읍의 관문인 선근지구에 ‘의(義)’를 테마로 한 4,000㎡ 규모의 도시림을 조성했다. 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의향의 도시라는 지역 특색에 맞게 독립운동에 앞장선 홍암나철 선생, 채동선 선생, 안규홍 의병장의 일대기를 조형 벽화로 만들어 별교의 의로움을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별교 가서 주먹 자랑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가 별교장에서 아낙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안규홍 의병장이 일본 순사를 한 주먹으로 때려눕힌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후 일제에 항거해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보성 사람들의 용기와 패기에 불어선 일본의 두려움이 ‘별교 가서 주먹 자랑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굳혀졌다. 보성군은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답살이 의병장 안규홍 동상과 황금 주먹 조형물이 설치했으며, 안규홍 포토존, 주먹 의자, 의향 의자 등 ‘의(義)’와 관련된 미술작품 12종 34점이 전시됐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시, 제23회 그림책 원화전시 운영

순천시는 1일부터 그림책도서관에서 제23회 그림책 원화 전시(피어나다, 그림책정원)를 운영한다. <피어나다, 그림책정원>은 개성 있는 작품으로 창작의 지평을 확장해온 6인의 그림책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글로벌 출판사와 협력하여 진행하며, ▲나현정(너의 정원, 봄의 초대), ▲명수정(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차마, 탑의 노래), ▲이기훈(09:47), ▲이소영(겨울 별, 여름), ▲이진희(어느 날 아침, 도토리시간), ▲지은(위대한 아파투라일리아) 등 원화작품 160여 점을 선보인다. 그림책도서관 2층 기획전시실에는 참여 작가들의 개성이 듬뿍 담긴 그림책정원이 전시 공간 안에 펼쳐진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